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순창군, 27일부터 1차 지급 신청... 군민 생활 안정 지원

순창군은 중동 지역 정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이고, 2차 지급 대상은 국민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 △국민소득 하위 70% 대상자 25만 원이며, 농촌 인구소멸지역 특성을 반영해 일반 지역보다 5만 원이 추가 지원된 금액이다.

신청 일정은 1차의 경우 4월 27일부

터 5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 신청을 받는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군은 조공회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집담 TF팀을 구성해 대상자 자격 확인,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점포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등 순창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조세 및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3-650-1311), 국민콜센터(110),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N팻스타’ 맞춤형 현장 이벤트

‘임실엔TV’ 유튜브 구독 연계 스탬프투어·롤렛 이벤트 등 풍성

임실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임실 오수의견관광지에서 열리는 제41회 의경문화제와 함께하는 ‘2026 임실N팻스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군에 따르면 축제기간에 군정 홍보 콘텐츠타워인 홍보담당관 전국 각

지에서 방문하는 반려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 참여형 이벤트와 고향사람기부제 홍보부스, 행운의 롤렛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임실군 공식유튜브 채널 ‘임실엔TV’ 구독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운영된다. 방문객은 행사장 내

지정부스를 순회하며 스탬프를 찍히고 SNS 구독 인증을 완료하면 선착순 450명에게 소정의 홍보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반려용품과 트래블 세트 등 맞춤형 ‘행운의 롤렛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배변봉투 등 산책에 필요한 반려용품과 여행용 세면도구, 린넨·핸드크림 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현장에서 10만원 이상 기부 시 기존 답례품에 더해 임실치즈 핫도그 1팩을 선착순으로 추가 증정해 참여 열기를 높일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춘향제’ 먹거리 콘텐츠 강화

남원시가 제6회 춘향제를 맞아 지역의 맛과 정체성을 담은 먹거리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이번 춘향제는 관내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한 총 26개의 먹거리부스를 운영하며, 특히 단순한 판매를 넘어 ‘춘향제만의 차별화된 미식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남원시는 파프리카, 흑돼지, 백향과, 미꾸라지 등 남원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전용 메뉴를 사전에 개발해 현장에 적용해 지역 식재료를 기반으로 메뉴를 구성해 가격 부담은 낮추고, 맛의 다양성은 높이는 데 주력했다.

주요 메뉴로는 △흑돼지 통가육·마리나 △흑돼지 미니리골탕 △파프리카

새우 아재튀김 △추어크림파스타 △백향과 모히또 등이 준비됐다. 이외에도 흑돼지 타코, 파프리카 산채육진 등 전통과 퓨전을 넘나드는 풍성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유한 외식 브랜드 ‘연돈’이 스페셜 부스로 참여해 축제의 상징성과 화제성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축제 먹거리 전반의 품질 수준을 견인할 계획이며, 대형 비비큐 특화 부스도 함께 운영해 축제 현장의 역동적인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17일, 먹거리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 대응, 가격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 특히 개발된 메뉴의 표준 레시피와 조리방법 교육을 병행해 운영 내실화를 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설명회

남원시는 지난 22일, 시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부서 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 보조사업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추진 방향과 세부 평가 지표,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목적 달성도 등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남원시는 올해도 나라살림연구소에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 평가 결과물 202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이 23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 중앙부처 방문해 핵심 사업 적극 협조 요청

남원시에 따르면 이성호 부시장이 23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성호 부시장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를 순차적으로 방문했으며,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운봉읍 중심시까지 도시재생사업(279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건의했으며, 지리산권 지역 특화사업을 활용한 체류형 산업 거점 조성도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과의 면담에서는 △차세대 식물의

소중 기술 및 표준화 개발사업(400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혁신본부 심의를 통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는 △하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96억원),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42억원) 등 재난 안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2020년 삼진강 제방 붕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과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재해예방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 가져

임실군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박현숙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2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5억원 이상 주요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13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재정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소비 위축 대응을 위한 지역

내 자금 순환 촉진, 건설·투자사업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민간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 강화 등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전체 대상액의 76.3%를 차지하는 시설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선급금 추가집행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해 당초 계획된 금액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 신속집행제도 활용 지침에 따라 △선급금 집행 활성화 △긴급입찰 △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관급자제 신고지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순창경찰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순창군은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도로 일원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에는 순창군 재무과와 경제교통과,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과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납부 안내와 함께 현장 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도 병행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경찰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 기념식 25일 개최

지리산 운봉 바래봉 허브밸리 일원에서는 오는 25일 제30회 철쭉제 기념식이 개최된다.

해마다 4월이면 지리산 자락을 따라 철쭉이 붉게 물들며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전국적인 철쭉 명소로 손꼽히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올해 철쭉제는 “사랑의 기쁨! 그리고 힐링의 발원!!”이라는 주제로 지리산의 너른 품속에서 만개한 철쭉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봉 지리산 자락은 산 능선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분홍빛 철쭉이 지리산의 풍경과 어우러져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남원시와 운봉에향회는 이번 철쭉제가 지역의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